





배포일시

2021. 5. 27.(목) 17:00 (총 4매)

보도시점

즉 시

담당부서

수도권기상청 예보과

담 당 자

과 장 윤기한 사무관 이동희

전화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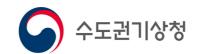
031-8025-5030

내일(28일) 출근길, 돌풍과 천둥·번개 동반 요란한 비

- O 출근길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,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 비
- O 천둥·번개와 돌풍성 강한 바람 주의, 우박 곳, 안전사고 유의
 -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주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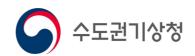
[5월 28일(금) 오후 기상상황 모식도]



□ 수도권기상청(청장 신도식)은 28일(금)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·번개와 우박,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,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□ 수도권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이 **28일 오전 서해상, 낮에 중부지방**을 지나서 **저녁에는 동해상**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켜 잦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며.
 - 28일에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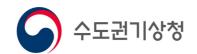
[강수 전망]

- □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 새벽(00~06시) 서해5도와 경기권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출근길인 아침(06~09시)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.
 - (강수집중시간) 수도권은 출근시간대(06~09시)에 시간당 20mm 내외의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수도권에는 **오후에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**하면서 산발적으로 내리다가, **밤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**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28일) >

- 서울·인천·경기도, 서해5도: 20~60mm

- □ (천둥번개·강한비)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공기가 유입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천둥·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짧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.
- □ (우박) 특히,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 - 비닐하우스와 과수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

[강풍 전망]

- □ 28일 새벽 서해5도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경기서해안과 일부 경기 남부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내외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,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적으로 시속 55km(초속 15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,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풍랑 전망]

- □ 28일 새벽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인천·경기앞바다에 바람이 시속 30~60km(초속 8~16m)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.5~3.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,
 - 서해중부해상에는 가시거리가 짧은 가운데,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하면서,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유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29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(대조기)으로 특히, 내일(28일)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은 만조 시 강한 바람과함께 높은 파고가 해안가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겠으니, 해안가와 갯바위안전사고(고립사고 등)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 한편, 항공기와 해상 선박의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.